스위스가 제안하는 여름 체험.

눈으로 보는 자연이 아닌, 온몸을 던져 체험하는 스위스의 자연

'다시, 자연의 품으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
새롭게 개발된 관광 상품 대신, 오랜 시간 제자리를 지켜온 자연과 문화 체험
루체른 호수에서 노을 향해 노를 젓고
에멘탈의 100 년된 과자를 탄생시키는 농가 따라 페달 밟고
니체도 표현할 방법 찾지 못한 고약한 알프스 계곡물 통과하고
세 강이 만나는 신비한 지점따라 흐르는대로 몸을 맡기고

스위스정부관광청 CEO 인 유어그 슈미트(Jürg Schmid)는 한 기고문에서 진정한 슬로우 트래블러가 원하는 것은 작지만 완벽한 체험으로, 진짜 사람과 자연, 풍습과 지역적 특색을 마주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를 '배워 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7 년부터, '다시, 자연의 품으로(Back to Nature)'라는 테마에 맞게 스위스 자연의 품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며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체험거리 700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전통과 문화를 토박이 전문 가이드와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자연 친화적, 지역 친화적 프로그램들로, 겉핥기식 여행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실제로 무언가를 '배워볼 수 있는' 체험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여행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무언가 새롭게 개발된 관광 상품 대신, 오랜 시간 거기에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스위스의 자연과 문화 속으로 뛰어 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체험을 소개한다.

1. 태양을 향해 노를 저어라
루체른 호수에서의 아름다운 저녁 체험
루체른 호수의 낭만적인 저녁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노을에 붉게 물든 저녁 태양을 향해 카약을 타는 것으로, 잊지 못할 체험이 되어줄 것이다. 가이드와 함께하는 카약 투어는 5 월부터 9 월까지 루체른 호수에서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로컬들에게는 퇴근 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얀(Jan)과 나딘(Nadine)은 루체른에 있는 대형 보험 회사에 다닌다. 육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 그들이다. 육지에서의 시간을 뒤로 하고 물가를 향하는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발한다. 바로 카약을 타고 노을을 향해 노를 저으러 가는 길이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노를 저을 시간이 아닌, 강습 시간이다. 패들을 잡는 올바른 방법, 뒤집히지 않는 방법, 휘청대는 카약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강습이다. 오늘 저녁에는 여섯 명이 참가하였다. 그 중 넷은 완전 초보다.

"모두들 구명 조끼를 입죠. 레토(Reto)는 엎드려서 사람들이 카약에 타는 것을 돕고요." 누구에게나 처음으로 노를 젓는 순간이 있다. 루체른 호수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정은 더욱 설렌다. 30 여분간 노를 젓고 나면 그룹은 메겐호른(Meggenhorn)에 있는 예수상을 만나게 된다. 리오(Rio)에라도 도착한 풍경이다. 두 팔을 활짝 벌린 예수상은 엔틀레부흐(Entlebuch) 출신의 조각가가 만든 것으로,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보다 30 여년이나 빨리 만들어진 20 세기 초반의 작품이다. 호반에 있는 조막만한 섬에 놓인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작은 예배당은 훨씬 오래된 것이다. 뱃사람을 수호하는 성인인 성 비숍 니콜라우스(Bishop Nikolaus)에게 바쳐진 예배당이다. 그룹은 예수상의 주의 깊은 시선 아래에서 잠시 쉬며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마법같은 고요를 맛볼 수 있다. 얕은 호수에 잔잔한 물결이 일고, 청둥오리와 뿔농병아리들이 카약 주변으로 원을 그린다. 호수 너머로는 강렬하게 붉은 태양이 물 속으로 점점 잠기고 있다.

물결과 물결이 만나 부서지고, 호수 위에서의 여정은 계속 이어져 간다.

카약 여정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일몰이다.
전설로 가득한 루체른을 대표하는 산, 필라투스(Pilatus)는 불을 뿜어내는 모양새다. 용의 전설로 유명한 필라투스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용하다. 익숙한 배경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렬한 풍경으로 마지막 셀카를 남기고 카약 초보들은 루체른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2. 지난 날 옛 내음 속으로
에멘탈(Emmental) 전통 체험 길
마을방앗간에서 빻은 밀가루, 치즈 공방에서 갓 만든 신선한 버터, 한 세기 넘게 이어져 내려오는 레시피로 구워낸 맛깔난 비스킷. 전기 자전거를 뜻하는 이바이크(e-bike)를 타고 에멘탈 계곡을 지나며 캄블리 브레첼리(Kambly Bretzeli) 트레일을 따라가며 만나볼 수 있는 옛 내음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여정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기분에 젖게 된다.

할데만(Haldemann) 가문은 1860 년부터 에멘탈 계곡의 작은 마을, 트룹샤헨(Trubschachen)에서 방앗간을 운영해 오고 있다.

목재로 이루어진 민트 그린이 취향인지, 아니면 붉게 녹슨 레드가 취향인지? 민트색과 붉은 색으로 된 오래된 빈티지 방아는 3 층짜리 높이만한 크기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경쾌하게 돌아가고 있다.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채로운 곡류가 이 곳에서 빻아지고 있다. 베아트 할데만(Beat Haldemann)은 방앗간의 매니저로, 어느새 다섯 번째 세대의 주인이다. 과자 회사인 캄블리(Kambly)가 1910 년 이 곳에 세워진 이래 할데만 가문은 에멘탈 지역의 유명한 캄블리 브레첼리 과자 회사에 밀가루를 납품해 오고 있다.

캄블리는 100 년전에 만들어진 과자 회사로, 창업자의 할머니 레시피를 따라 만든 비스킷이 히트를 치며 스위스에서 유명해 졌다. 오늘날 캄블리는 스위스 최대의 비스킷 제조사이자 수출 물량도 많다. 100 년이 지나는 동안 100 종류의 비스킷으로 생산 품목을 확장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전설적인 비스킷을 굽는데 사용되는 기본 재료다.

악수는 곧 계약 성사를 의미한다. “마을에 방앗간이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 품질에 만족하는 한, 할데만 가문은 우리에게 밀가루를 지속적으로 납품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 옛날 캄블리 창업주가 말한 바 있다. 악수로 맺어진 계약은 지금까지도 단단히 맺어져 있다. “아직도 캄블리와의 서면 계약은 없답니다.”라며 베아트 할데만은 미소를 짓는다.

전통의 기원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 있다. 캄블리 체험 투어(Kambly Experience tour)에 참가하면 캄블리 브레첼리 공장을 찾아 즐겁고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전통도 체험할

수 있다. 앱과 이바이크로 채비를 마치고 777 번 포스트를 따라 나서면 에멘탈 계곡의 완만한 언덕이 이어지는 어여쁜 자전거 투어를 시작할 수 있다. 트레일은 비스킷을 위한 밀가루를 생산하는 방앗간과 농부, 치즈 생산자와 베이커를 따라 이어진다. 자전거로 소모된 체력은 쉬는 시간에 제공되는 맛있는 비스킷을 통해 곧바로 회복할 수 있다.

옛날의 곡식들은 참 다양했다. 이들은 이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체험 투어 동안 배레그빈켈(Bäreggwinkel) 농장을 지나게 되는데, 트룹샤헨 위 나즈막한 언덕 위에 자리해 있다. 여기에 정착한 농부 가족은 할데만 방앗간에서 빻아낼 작물을 재배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옛 곡류 중 하나인 스펠트가 여기에서 자라난다. 스펠트가 특히 억센 곡식인 까닭에 고산 지대에서도 잘 자라고 언덕이 많은 에멘탈 지역에서는 이상적인 종자다.

배레그빈켈 농장에서는 소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다. 이 소들에게서 짜낸 우유도 캄블리 브레첼리로 보내지고, 트룹샤헨에 있는 괴취(Götschi) 마을의 치즈 공방에서 버터로 태어난다. 세심하게 신경써서 탄생시킨 치즈는 그만한 댓가를 한다. 치즈 장인인 마르틴 괴치(Martin Götschi)는 알프스에서 피어나는 겐티안 꽃 무늬가 새겨진 틀에 조심스레 버터를 붓는다. 조심스런 작업을 하며 그는 '그런데 말이죠.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건 숍에서 파는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죠."라고 찡긋, 윙크를 한다.

지난 날 맛 그대로 비스킷 맛이 난다면 아무 걱정 없죠.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캄블리 체험 투어는 캄블리의 기원을 탐색하며 이 인기 많은 비스킷이 만들어지는 주 원료가 어디에서 나는지 찾아보는 여정이다. 투어는 랑나우(Langnau)에서 시작해 에멘탈 특유의 구릉지대를 지나 기막힌 풍경이 펼쳐지는 산과 계곡의 파노라마를 따라가다 캄블리 공장 체험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맞는다. 랑나우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다. 총 길이는 30km 이며, 난이도는 중급이다. 오르막 고도차는 750m, 내리막 고도차도 750m 다.

3. 눈부시고, 반짝이고, 빛나는, 아래에서 올려다본 비아말라 계곡(Viamala Gorge)
그라우뷘덴(Graubünden)주 비아말라 캐녀닝(Canyoning) 체험

"그러기 싫은데요. 되돌아 갈 수 있어요." 순간의 망설임, 그리고 이어지는 물 속으로의 짧은 점프, 18 세기 빌데너(Wildener) 다리 아래로의 수영. 두려워 하지 말라. 이 곳에서의 캐녀닝은 민감한 영혼의 소유자들에게 완벽한 체험이 되어줄 것이다. 특히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여기만한 자연 체험 액티비티는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하는 데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바로 물을 헤쳐가는 것이다. '비아말라'는 '고약한 루트'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비아말라 계곡에 있는 제재소에서 일을 하는 폭력적인 주정뱅이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폭군 행세다. 하루는 가족들이 그를 살해하고 사건을 은폐한다. 이 이야기는 존 니텔(John Knittel)의 소설 비아 말라(Via Mala: 1934)에 등장하는데, 그 이후 세 차례나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 중 하나에 아버지, 요나스 라우레츠(Jonas Lauretz)로 분한 마리오 아도르프(Mario Adorf)가 등장한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한 사람이 인생에서 취할 수 있는 수 많은 “고약한 루트”. 영화에서 캐릭터들이 묘사되는 방식이 이를 드러낸다. 그러나 고약한 루트를 담아내는 것은 영화나 소설 뿐만이 아니다. 수백년 전, 당나귀를 앞세운 로마인들과 상인들은 비아말라 계곡의 고약한 지형에 고약한 악담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비아말라 계곡의 끔찍한 장엄함에 대해 단 한 줄도 쓰지 말아야겠다. 이전에는 스위스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니 말이다.”고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비아말라 계곡은 나무 둥치마저도 날아다닐 수 있는 곳이다. 고약한 길에서 아름다운 길로 이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편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이 감춰져 있고, 기괴한 바위 형상이 계곡 위로 솟아나 있고, 그 위로 짙푸른 초록의 이끼가 뒤덮여 있으며, 햇살 한 줄기가 에메랄드 빛깔의 물에 장난을 친다.

“갑자기 우리는 4m 위로 솟아나 있는 두 절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무 둥치와 마주했죠. 계곡에서 움틀대고 있는 굉장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라고 한 참가자는 말한다.

매년 루트는 새롭게 바뀐다. 매년 여름 릭 브라운(Rik Brown)은 계곡이 변했음을 발견한다. 그것은 캐녀닝 투어를 위한 새로운 루트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폭우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두 시간쯤이 지나자 참가자들은 계곡을 지나게 되었다. 점프는 더 이상 2m 를 넘지 않고, 물도 대체로 잠잠하다.

물을 통과하는 루트가 가장 좋은 루트 중 하나였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자주 있는데, 맞는 말이다. 계곡에는 움푹 파인 구덩이 모양의 돌개구멍이 꽤 있는데, 물 소용돌이가 거친 돌을 빨아 들임으로써 회오리 모양으로 바위를 깎아내면서 만들어진 모양이다. 이 모든 것을 캐녀닝을 통해 가까이 체험할 수 있다.

4. 흐르는대로!
아르가우(Aargau) 지역의 워터 캐슬(Water Castle) 탐험 체험
워터 캐슬이라 불리는 스위스 북부의 브루그(Brugg) 지역은 세개의 강줄기인 아레(Aare), 로이스(Reuss), 리마트(Limmat)가 모이는 지점이다. 아름다운 물가와 손타지 않는 섬들로 이루어진 이 지역은 자연을 찾는 이들을 매료시켜 왔다. 고무 보트에 올라 래프팅 탐험에 나서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노와 고무 보트로 무장을 하면 워터 캐슬 탐험 채비는 마친 셈이다. 브루그에 있는 다리 근처에서 아레 강이 폭을 좁히며 깊어 진다. 하지만 곧, 다시 여유롭게 그 폭을 넓히며 다른 두 강인 로이스와 리마트와 합쳐진다.

자연이 만들어 낸 이 놀라운 풍경이 바로 워터 캐슬이라 불리는 곳이다. 스위스 40% 이상의 유수가 함께 모여드는 곳이다. 중세의 고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라고 뱃사공 크리스토프 플로리(Christoph Flory)는 놀란 참가자들에게 설명한다. “독어로 집합점에 대한 물 관련 용어죠.” 래프팅 보트에 올라탄 참가자들은 브루그에서 슈트로펠(Stroppel) 섬까지 여정을 이어가며 손 때묻지 않은 물의 세상 속으로 입성한다. 크리스토프 플로리와 디터 훔벨(Dieter Humbel)이 안전하게 여정을 이어가며 워터 캐슬에 얽힌 그들만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안 자연은 끊임 없이 그들을 반겨 준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아레와 로이스 강은 둘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다. 로이스 강이 먼저 부드럽게 아레강에 합쳐 진다. 세 강 중 가장 거칠고 야성적인 로이스 강에 대해 훔벨은 “루체른(Luzern)을 지나는 로이스 강이 엔틀레부흐(Entlebuch) 지역에서 폭우라도 만나면 흙탕물로 변하고 말죠. 초록빛 아레강과 합쳐지고 난 뒤에도 두 강은 여전히 두 개의 다른 띠를 이루고 오랜 시간 흐르게 됩니다.”라고 설명한다.

“모든 것은 유동성을 띄죠.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가와 섬이 탄생하죠. 다른 것들이 쓸려 나가는 동안 말입니다.” 뱃사공이자 생물학자인 크리스토프 플로리는 말한다.

아르가우 주에 속한 아라우(Aarau) 지역에는 사실 두 개의 워터 캐슬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된 브루그에 있는 워터 캐슬에는 성곽이 없지만, 할빌(Hallwyl)에는 로맨틱하고 해자를 두른 중세의 고성이 있다.

강둑에서 자라는 거대한 버드나무들은 이 곳에서 너무나 잘 자라고 있다. 튼튼한 뿌리로 잦은 범람을 버텨날 수 있는데, 생물학자인 플로리 설명에 따르면 버드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범람이 필요할 정도다.

듀오로 시작된 강은 트리오가 된다. 리마트슈피츠(Limmatspitz)에서 리마트 강은 아레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듀오는 트리오가 된다. 곶을 한 바퀴 돌아 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 좋은 때다. 스위스의 환경 기관인 프로 나투라(Pro Natura)의 소유지다.

동물의 왕국이나 다름 없는 이 곳에는 광범위한 종류의 야생 동물이 리마트슈피츠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다. 이국적인 동물도 몇 있는데, 하이랜드 소나 물소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관광객들을 위해 예쁜 사진 속 포즈를 취하기 위해서 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모두 생태학적 임무를 띄고 있죠. 예를 들자면 물소들이 목욕을 함으로써 연못이 어는 것을 막아 주죠. 멸종 위기에 처한 청개구리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라고 훔벨은 설명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